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등록교우 : 배영주 형제(몽골목장), 박소협 형제(몽골목장)
2. 오늘 낮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점심식사 후에는 2층 예향카페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의류바자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아디다스 키즈 브랜드로 특별 D/C 30%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합니다. (문의 : 신동기 집사, 이영선 권사)
4. 이번 주 토요일(10/12) 청소년당은 키크리스탄목장(신동기 집사)이며, 다음 주일(10/13) 식사담당은 에스더목장(오효근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후반기 세례자(입교자 포함)를 위한 양육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EM(Every Meeting) 목상집 10-12월호 여분이 있습니다.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양실로 문의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권당 3,000원입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0월 6일	10월 13일	10월 20일	10월 27일
예배기도(오전)	이강정 집사	조정석 집사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박숙이 권사	이연미 권사	김금옥 권사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에스더목장 (오효근 권사)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눔바목장 (유숙정 권사)	
토요일청소	캄보디아목장 (10/5)	키크리스탄목장 (10/12)	우즈베크목장 (10/19)	라오스목장 (10/26)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마을(장터, 마트) 전도'를 위해서
2. 2019년도에 세워진 남여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사역지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행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김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는이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경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이강정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성찬참여	다같이
성찬후기도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이다

시편 33장 2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김묘상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두나미스 찬양팀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521장(통253장)	다같이
기도	오승연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요 21:1-14	인도자
말씀선포	‘숯불 위에 생선과 떡’	김묘상 목사
기도	김묘상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293장(통 414장)	다같이
축도	김묘상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20:19-23 ‘부활신앙’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기도의 관념’(100)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30 성령강림절 후 말씀묵상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미소 지을 때가 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을 뒤로한 채 운전석에 오르면 오롯이 혼자만의 공간이, 혼자만의 시간이 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누군가는 핸드폰을 연신 들여다보며 앞을 향해 걷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지칠 대로 지친 표정으로 목적지를 향해 걷는다. 이런저런 오늘을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기에 닫힌 마음도 그야말로 무장해제 된다.

노회 일로 서울 종로를 찾았다. 평소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날만큼은 모임 약속시간이 너무 일러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창문을 굳게 올리고 좁은 운전대에 앉아 도로에 넘실대는 차량 행렬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올림픽대로 극심한 정체 속에서 제 시간에 맞출 지가 염려스러워 조바심에 애가 탄다. 그렇게 무표정하게 앞차의 점멸하는 붉은 등만 바라보며 가다서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거의 서있다시피 한 차량행렬 속에서 차창으로 시선을 돌려 옆 차선 자동차를 본 그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창문을 내린 그 작은 시야 속에서 한 아이가 자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이리저리 빙누르며 서로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장난치던 아이는 어느새 엄마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웃음을 길게 남긴다.

시야를 가리는 시멘트 더미의 고층 아파트, 매연을 내뿜는 철제 자동차들로 가득한 삭막한 도시를 위로하듯 감싸 안는 그 부드러운 표정. 그제야 하나 둘 스쳐 지나가는 차량 안이 마법처럼 눈에 들어오고, 따뜻한 햇살이 반사되어 나오는 아파트 창 너머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의 바쁜 손길이 보이고, 옆 차에서 틀어놓은 노랫소리를 따라 흥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안도감, 매일같이 이어질 삶의 무게감이 교차하고 있다. 바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시작해야 한다. 잘 산다는 것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오늘의 반복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뿐이다. 다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투덜거리는 것보다는 그런 일을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 바쁜 일상에도 여유로운 미소를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Written by 허영진